

극단

열린극단

창단 공연

극강

1994



작·가·의·말

결론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여 화

처음 신동엽님의 서사시 「금강」을 대한것은 최선배님의 강력한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1960년 4·19의거를 겪은 시인이 그 감격을, 잠시나마 하늘을 볼수 있었던 감격을 과거의 역사속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금강」, 즉 1894년의 갑오농민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대본으로 만들기 위해 우선 역사적인 자료조사에 착수했고 거기서 놀란것은 갑오농민 전쟁에 관한 자료나 논문의 미약함이었습니다. (정치적·사회적 영향일지도 모르지만) 얼마전만해도 교과서에서까지 '동학란'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으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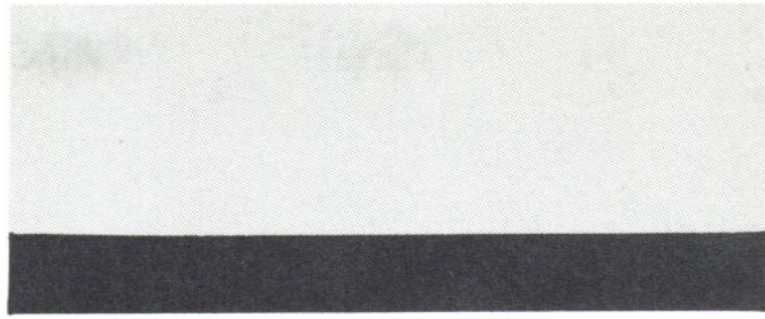
결국 소위 '동학란'의 새로운 해석을 저희 나름대로 시도했고 그 명칭은 '갑오농민전쟁'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4차에 걸친 대본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품은 원작 「금강」에서 차츰 저희들의 이야기로 바뀌어 갔고 결국 「금강」쪽에서는 '신하늬'라는 인물만이 저희 작품에 남게 되었습니다. '전봉준' 역시 완전한 혁명가가 될수 없었다는 저희들의 해석으로 재창조 되었고 그외 농부들, 아낙들은 어느 역사속이나 존재하며, 약하면서도 가장 강할 수 있는 하층계급들로서 우리들의 형제, 부모, 이웃으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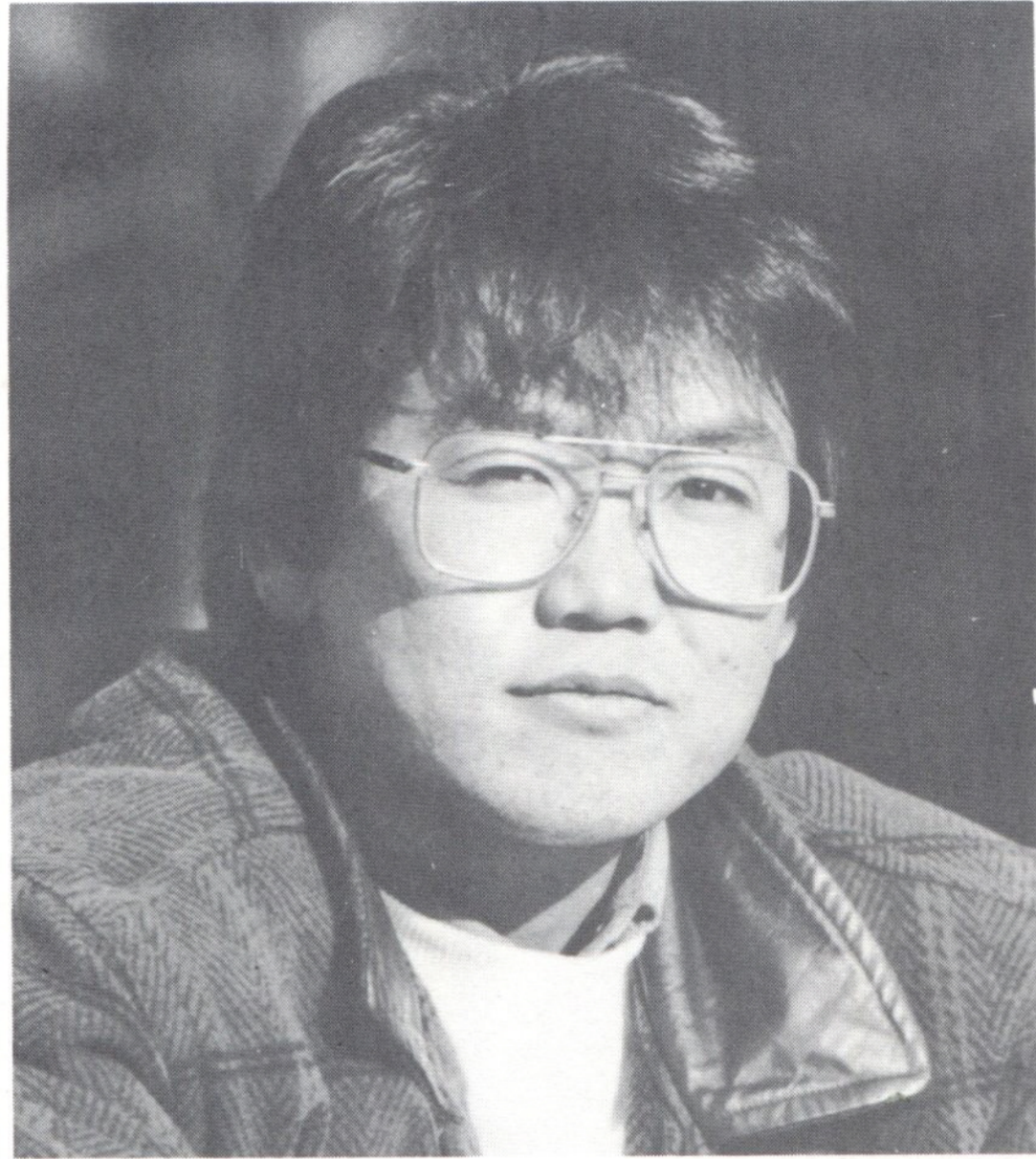
작품은 연극을 공연하려는 배우들의 역사 논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곧 저희들의 대본화 과정을 요약해서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갑오농민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요소들이 재현되면서 연극은 농민전쟁 발발, 전주함락, 전주화약, 집강소시대, 청일전쟁, 재봉기로 이어져 나갑니다.

1894년의 모든 역사가 두시간도 채 되지 않는 연극속에 들어가기엔 무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역사를 재조명했다고 봅니다.

「금강, 1894」는 막을 올렸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건 상관없습니다만, 과거의 역사가 결코 지나가버린 시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 작품을 만든 보람을 느낄 수 있을겁니다.



연·출·의·말



이 창 복

한층 살찐 불안한 가슴과 눈빛으로...

아무리 창문을 닦아도 창밖엔 지리한 생활외엔 보이지 않을때 우린 '연극' 이라는 치맛자락 아래 모여 앉았다. 이때 연극은 자신을 숨겨주는 훌륭한 도피처였다. 멋진 안식처인 것이다.

말을 시작한다. 파랑새가 보인다. 맑은 소리도 보인다. 눈빛은 빛난다. 우린 삶을 사랑한다고 외친다. 움직인다.

걷는 연습
우는 흉내
웃는 흉내
그림도 그린다.

머릿속에선 무대가 춤을 춘다.

작품의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로 변화한다. 더이상 파랑새도 맑은 소리도 그 눈빛도 없다. 누군가 건드려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한바탕 주먹질이나 하고 싶을 뿐이다. 왜 이따위 것을 또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얼굴에 쓰고 다닌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는다.

비틀거리는 연습
증오의 눈빛
말없음
아닌 사람 흉내
그림은 지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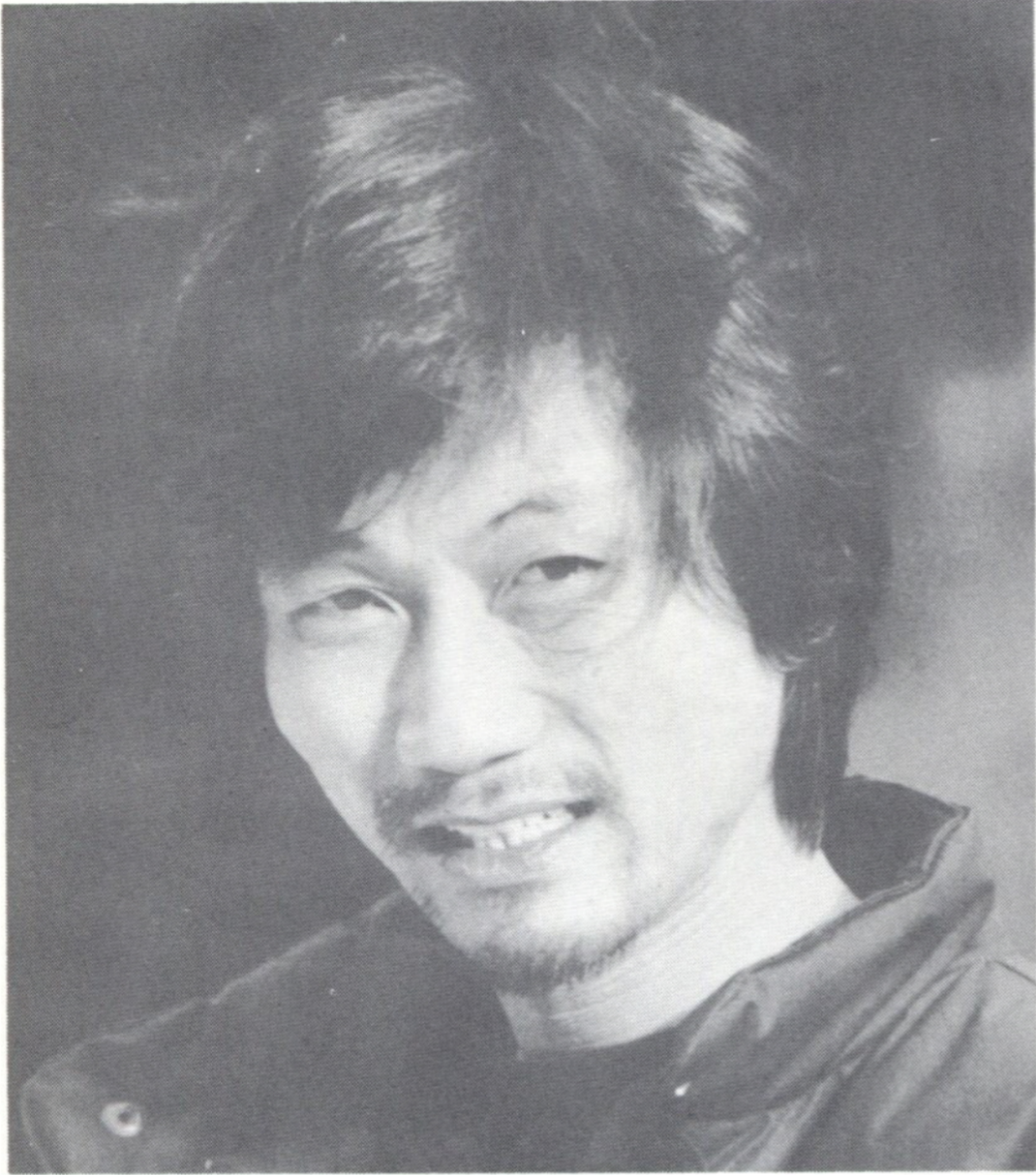
머릿속의 것은 거짓이었음.

많은 시간이 지나간다. 무언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되겠기에, 우린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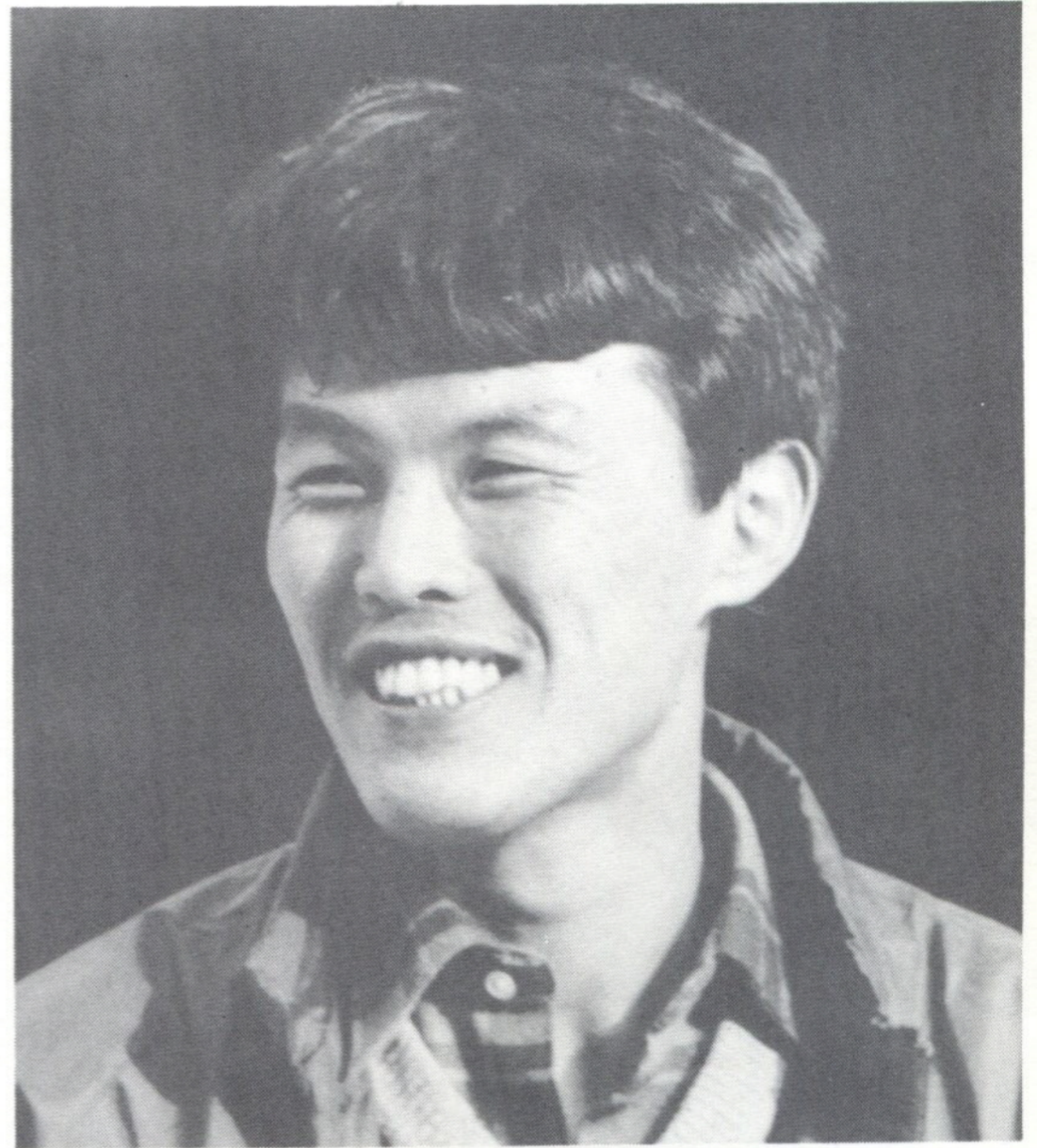
한층 살찐 불안한 가슴과 눈빛인 것이다. 언제나 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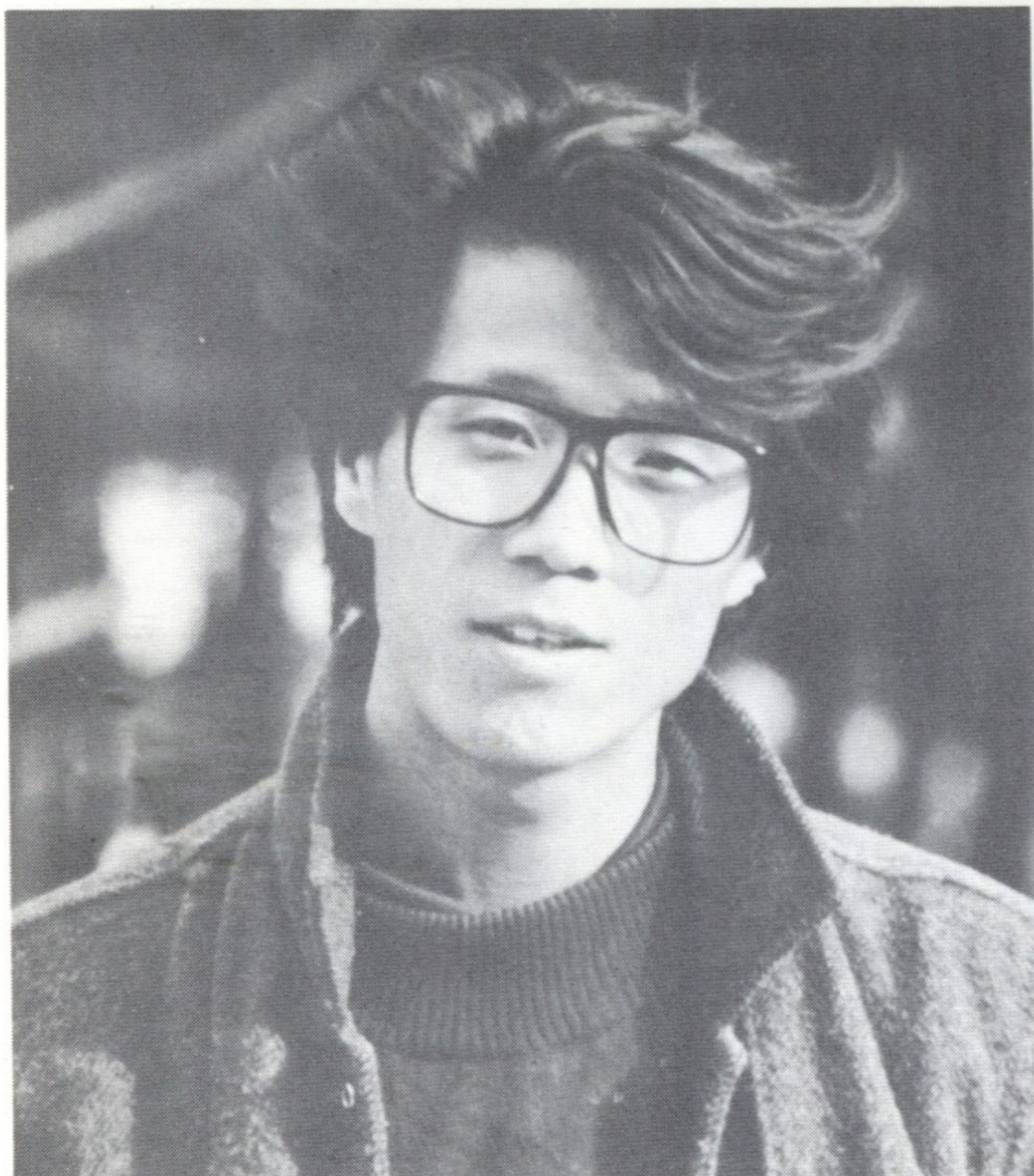
CAST



▲ 최 웅



▲ 류두신



▲ 한종환



▲ 이여화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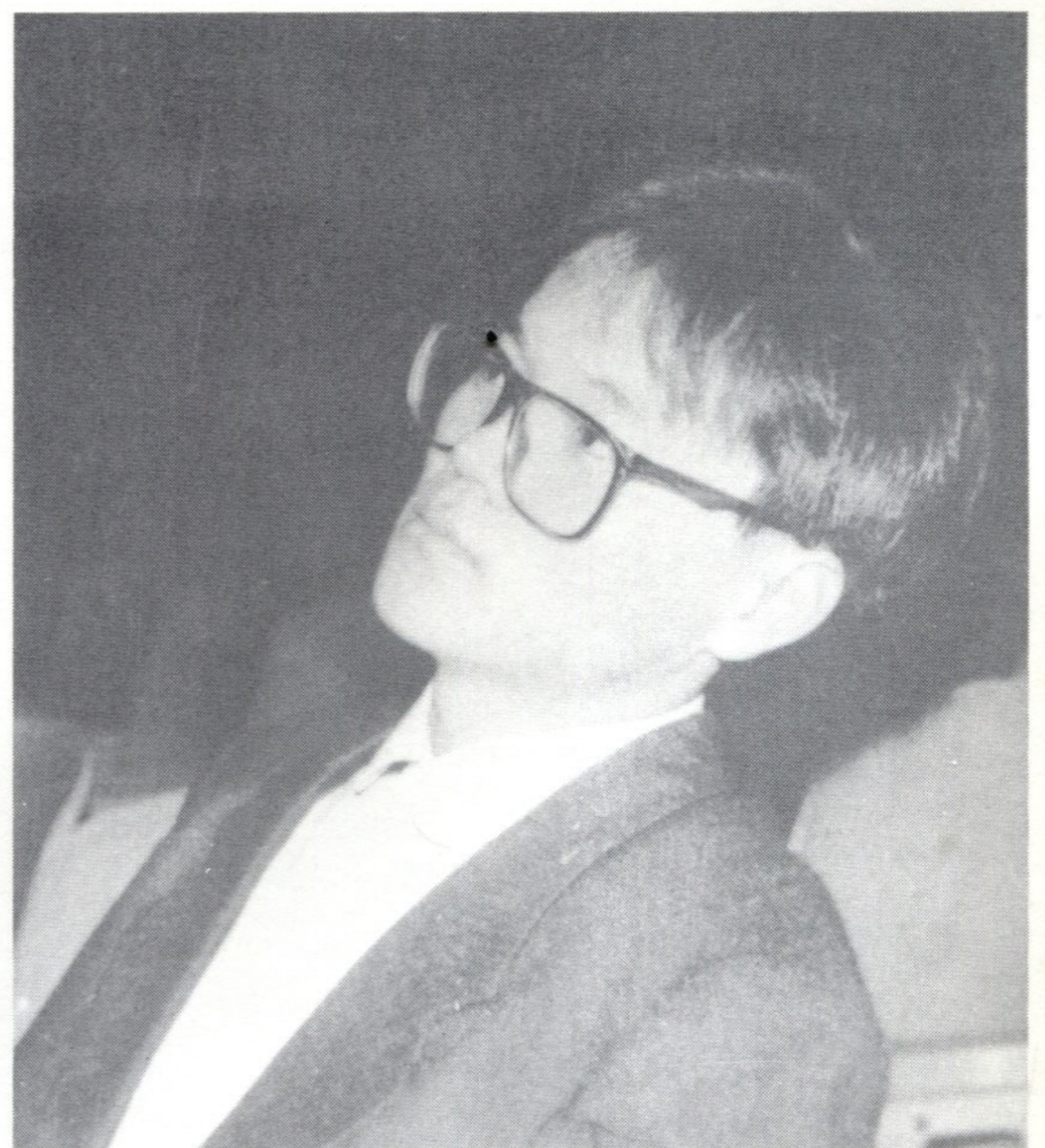
▲ 신명식



▲ 원윤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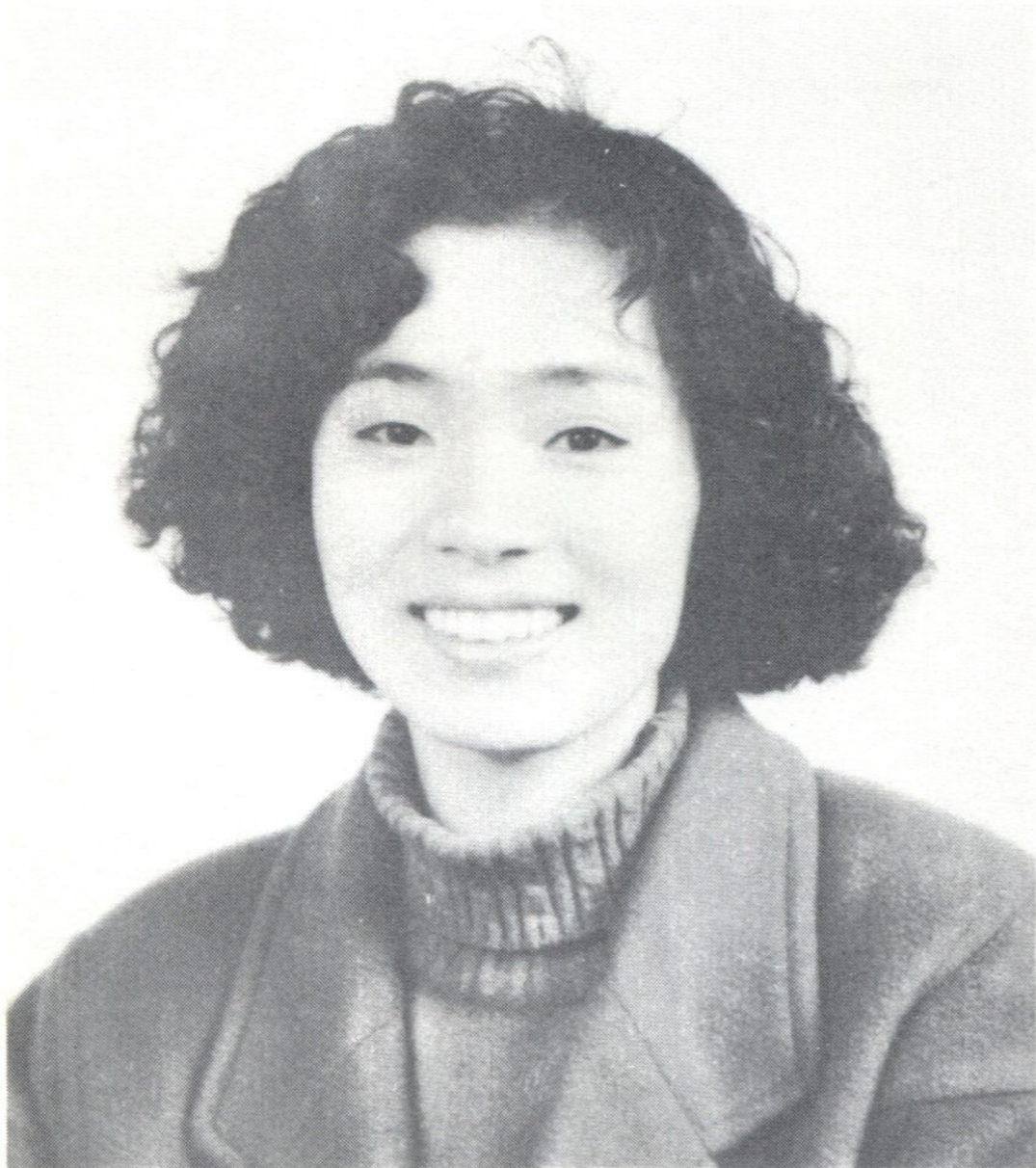
▲ 박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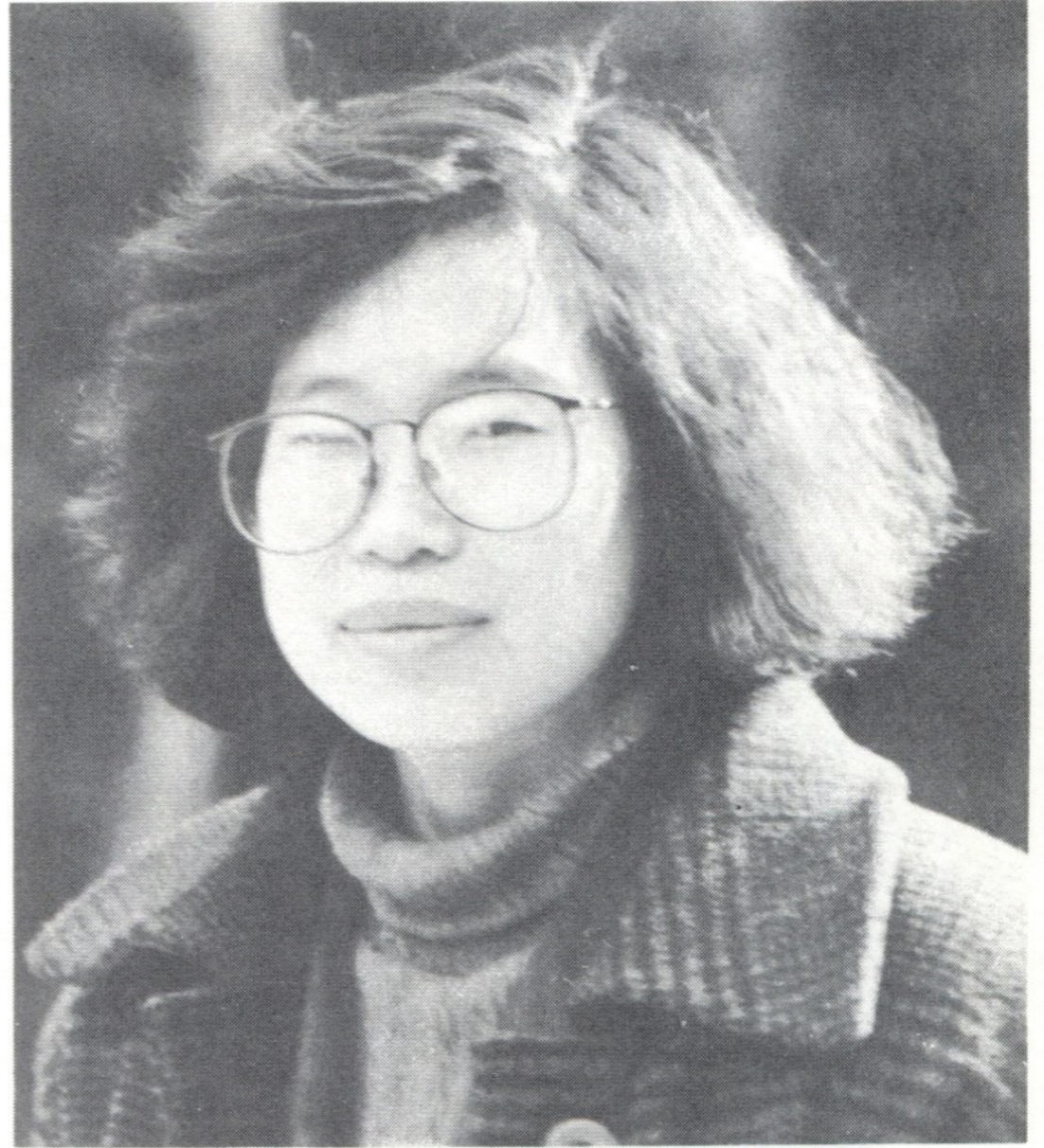
▲ 박동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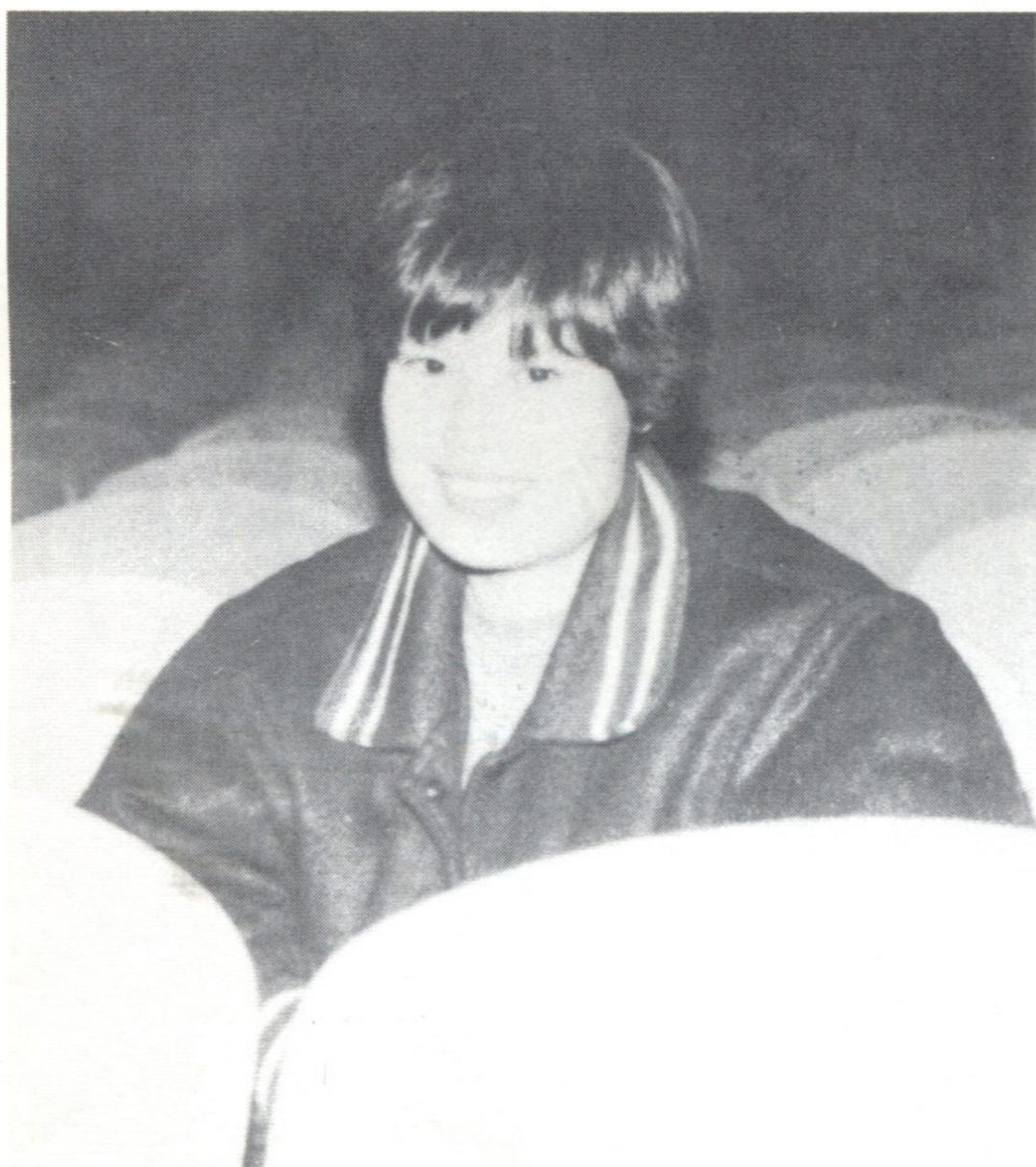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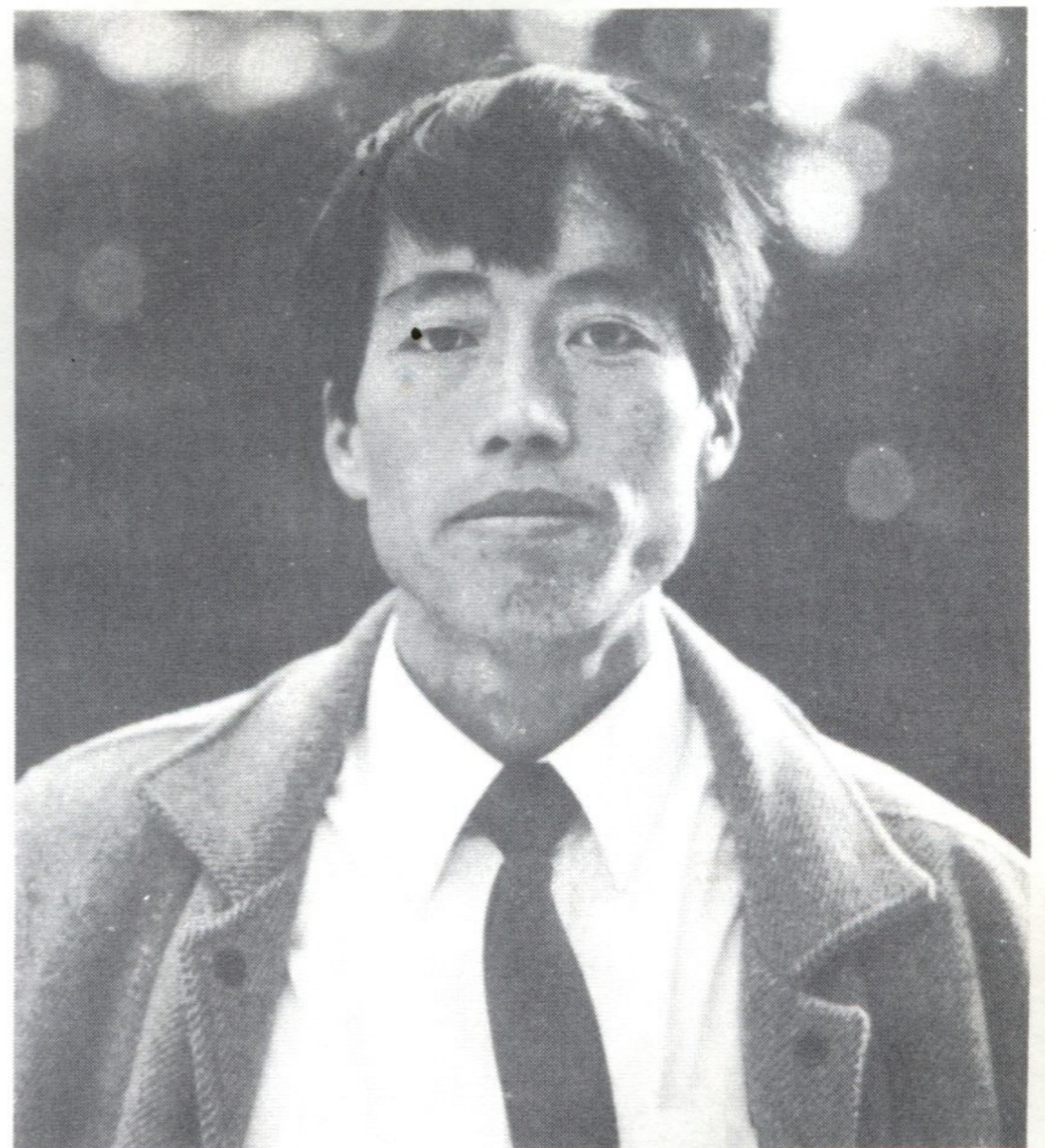
▲ 기획 / 최 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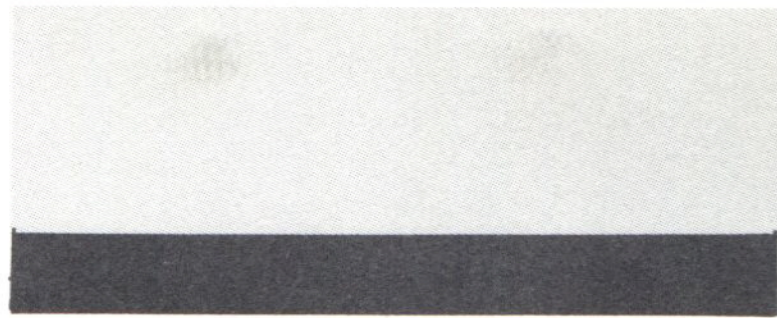
▲ 무대감독 / 강 속 희



▲ 장치 / 류 윤 속



▲ 조명 / 하 정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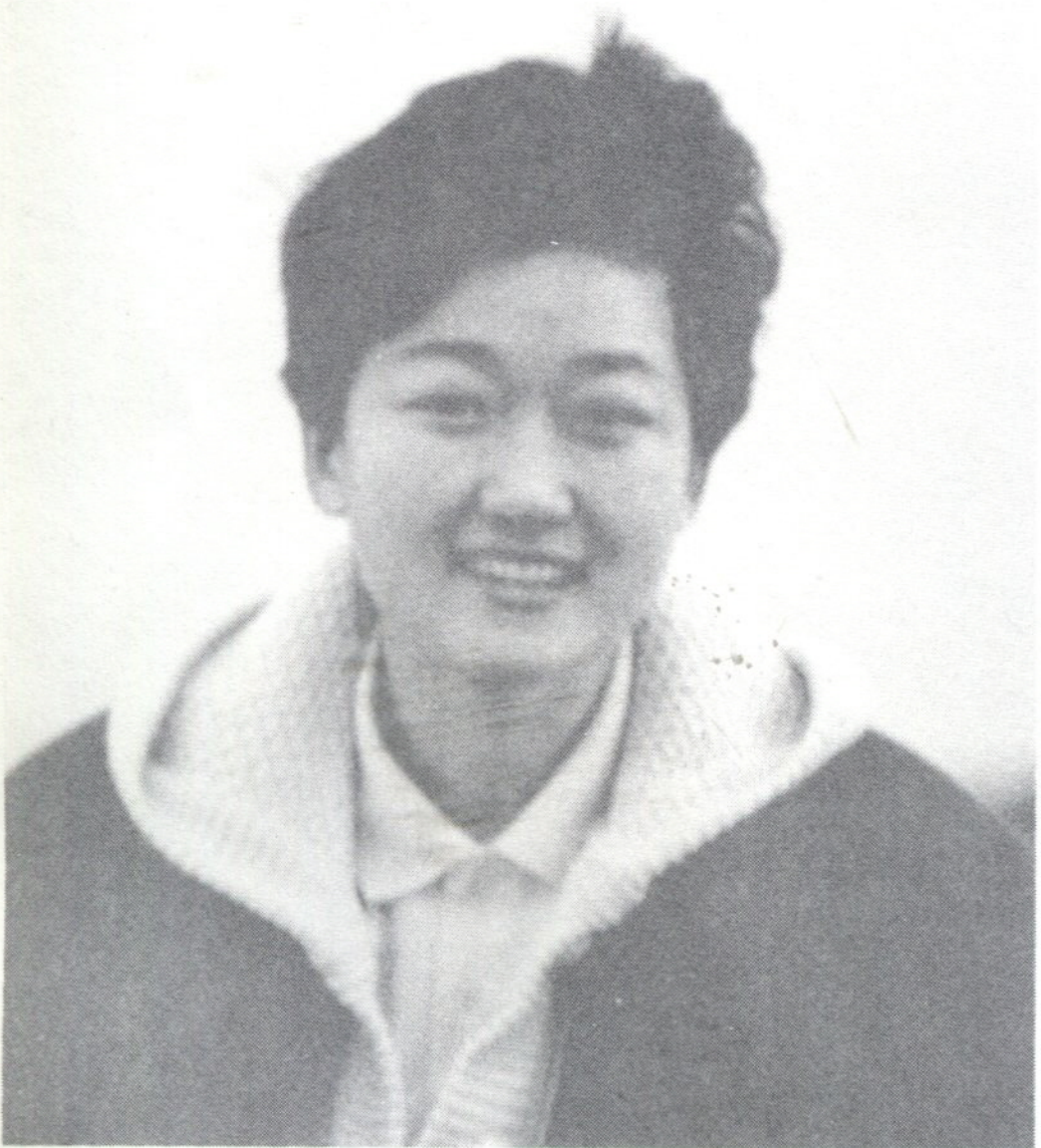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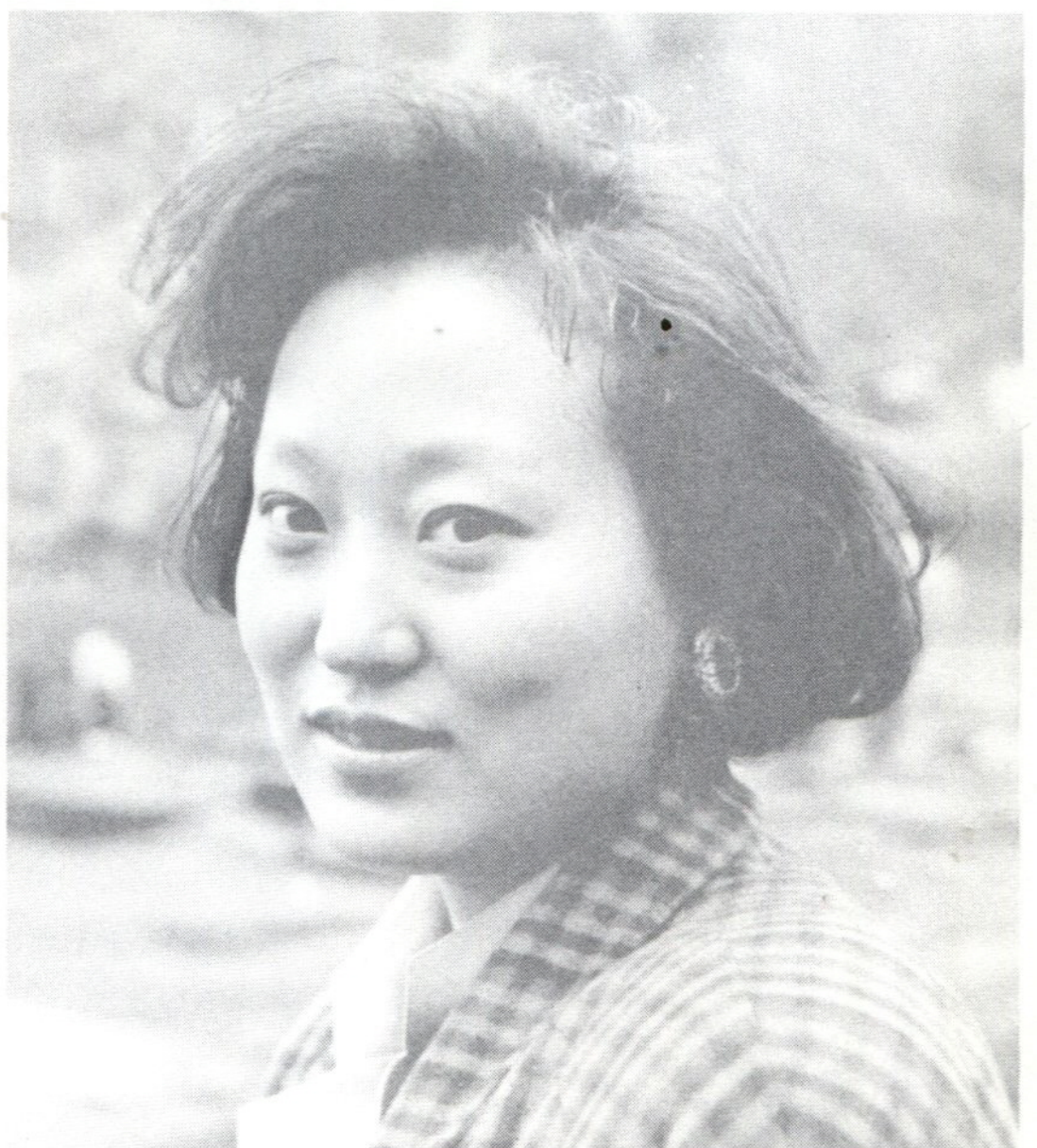
▲분장 / 박미정



▲소품 / 박은주



▲효과 / 박정미



▲의상 / 김명희

■ 표지디자인/ 최석운 ■ 도움주신분/ 권남희 이성순 이현숙 이종훈 정숙희 정경영 황석원 안태형